메트로 2014년 1월 23일 목요일 제2900호 www.metroseoul.co.kr

"말띠해 한국경제도 말춤" 싸이의 응원 21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국빈 방문에 이어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참석차 다보스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벨베데레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가수 싸이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싸이, 존 넬슨 로이드 회장, 박 대통령, 허창수 전경련 회장, 메리 프랜셀 JP모건체이스 인터내셔널 회장. /연합뉴스

'사후약방문' 카드대책 먹힐까

정부, 매출 1% 징벌적 과징금 부과·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 등 발표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정보 보유, 유통, 관리 체계가 큰 폭으로 강화되는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된다. 또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KB국민, 롯데, NH농협 카드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22일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기본적인 보안 절차만 준수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 사고"라며 "사고를 초래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을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 보안 경각심 환기를 위해서 사고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 한도의 행정 제재를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예정이다.

당국은 2월 중으로 세 카드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의 전·현직 관련 임직원,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또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카드 은행의 영업시간 연장, 점포 확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금융사가 예방도 강력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인 신용정보 수집, 보관, 관리 및 유출 사고 대응 등 전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점검해 유출 재발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을 보관토록 해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3자 제공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관리 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대출 모집 영업 등을 강력히 제재해 불법적인 정보 유통의 수요 측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정보 보호와 관련된 금융회사와 임원의 책임을 확대하고 보안규정 준수 등을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을 임원으로 임명해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고 금감원 검사 시 보안규정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정보 유출 시 제재를 대폭 상향 조정 정보 유출 재발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보 유출 관련 행정 제재, 형벌 등 사후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600만원 수준인 과징금이 매출 대비 1%로 대폭 늘어난다.

당국은 여기에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정보 유출 관련 형벌 수준을 가급적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박정원기자 pjw@metroseoul.co.kr

'발신번호 변경' 문자메시지 전송 내달부터 원천 차단

번호도용 문자 차단서비스 기업 외에 개인에게도 제공

다음달부터 휴대전화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한 문자메시지(SMS) 전송이 차단된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부터 휴대전화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이통사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의 협조를 통해 2012년 말부터 신규 출시된 휴대전화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 기능을 없애고, 이미 보급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운영체제(OS)를 젤리빈(4.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OS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구형 휴대전화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 폭리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통사가 통신망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하도록 했다.

인터넷 발송 문자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지만 향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준비 중이다. 우선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 실시, 서비스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을 통해 발신번호 조작 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 문자의 본문 내용에 식별문구([웹 발신])를 표시해주는 식별문구 표시 서비스를 SK텔레콤에 이어 KT, LG유플러스 등 모든 이통사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개선해 개인 이용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대세' UHD 시장 리더의 조건

기자 수첩

이재영 (경제산업부 기자)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다녀와 보니 초고화질(UHD) TV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한·중·일 3국의 경쟁이 특히 심한데 우리나라가 UHD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4'를 참관한 주요 정부 인사들이 나란히 이야기한 내용이다.

최근 지상파, 케이블 업계, IPTV 업계 모두 UHD 방송 상용화 준비에 본격 돌입한 상황이다. 특히 케이블 업계는 지난해 7월 시험방송을 실시하며 유료방송 업계에서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중으로는 본격 UHD 방송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IPTV와 위성방송 역시 UHD 시범 방송을 실시하고 2015년 상용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UHD 방송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별 사업자의 한계가 있는 만큼 UHD 관련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투자, 지상파의 UHD 방송 조기 상용화를 위한 700MHz 주파수 할당 등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UHD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방송 시장에는 끊임없는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UHD 방송 시장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차세대 방송 시장 역시 한류 바람을 앞세워 당당히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굳게 잠긴 철새도래지 가창오리에 이어 큰기러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된 22일 시화호 상류의 철새 도래지인 경기 안산 갈대습지공원에 직원들이 임시 휴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뉴시스

전국 분포 큰기러기도 AI

군락지 따로 없어 전파범위 커…발생지 3㎞ 내 오리 27만 마리 살처분

조류인플루엔자(AI)에 오염된 것으로 확진된 농가가 5곳으로 늘었다. 특히 가창오리에 이어 국내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큰 기러기도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2일 "전북 고창·부안 인근 농장 4곳에서 AI 오염을 확인했고 또 의심신고가 들어와 오염 여부를 검사 중인 농가는 총 6곳"이라며 "다만 어제 최초 발병 농장에서 1㎞ 떨어진 고창군 해리면 농장에서 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방역대 밖에서 추가 AI 감염의심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동림저수지에서 수거해 AI 감염여부를 의뢰한 큰기러기 사체 1마리에서도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큰기러기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시아 북쪽에 주로 서식하며 10월초부터 이듬해 3월초까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 철새다. 문제는 큰기러기가 가창오리와 같이 겨울 군락지를 형성하지 않고 전국에 분포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파 범위 측면에서 가창오리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전국이 AI의 위험권역에 드는 셈이다.

까지만 방역당국은 큰 기러기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어디에 주로 머무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도내 AI 발생지로부터 3㎞안에 있는 21개 농가의 오리 27만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로써 AI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오리는 50여만마리로 늘었다. 이들 농가에는 44억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연탄 지게 진 안철수 22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안철수(왼쪽 둘째) 무소속 의원이 봉사자들과 함께 연탄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安 "서울시장 출마 상식에 안 맞아"

김성식 공동위원장 합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과 관련,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2일 오전 여의도 새정치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여준 새정추 의장이 안 의원에게 여의치 않으면 서울시장에 나갈 각오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말씀을 나눈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일축했다.

안 의원은 "농담으로도 서울시장 출마 관련 언급은 한 적이 없다"며 '안철수 신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 "계속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리나라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3월 창당 선언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걸 가지신 분들이 너그럽게 새로운 변화와 국민의 열망에 대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서 새 정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성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안 의원의 공동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조현정기자 jh@

<경력단절여성>

'경단女'도 내년부터 국민연금 혜택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장애·유족연금 수령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취업 경력이 단절된 주부도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학생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은 임의 가입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함께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적용 제외자가 된 국민이 46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규정상 장애·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형평성 문제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음에도 결혼 후 소득 활동이 없어 적용 제외자로 분류된 사람들 전부를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소득활동 당시 10년의 노령연금 수령 조건을 채우지 못한 주부 등도 추가 납부를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인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도 30%로 늘렸으며 출산과 군복무 등의 경우에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새누리 기초선거 공천 유지 당론화 무산…"정개특위 위임"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선거 공천 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의원총회를 벌였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선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론을 결정짓지 못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 가능성이 있고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공천 유지에 대한 결론을 국회 정개특위에 위임하기로 했고 당론은 없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병원 문 닫게 만들겠다"

'에이미 검사' 현직 첫 공갈 혐의 기소…"에이미에게 1억 건네"

검찰이 22일 연예인 에이미(32 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66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따르면 전 검사는 에이미와 수사검사와 피의자 관계였지만 에이미가 2012년 11월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에도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다.

에이미와 자주 연락하며 도움을 준 전 검사는 에이미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성형수술 후 재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수술 부위가 5일났다며 부작용을 호소하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결국 전 검사는 주말을 이용해 에이미와 함께 그가 성형수술한 병원을 4~5차례 직접 찾았다.

처음에는 최모 병원장과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 듯하다 의견 차가 생기자 전 검사는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고 최씨를 협박했다.

에이미는 덕분에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았고, 아울러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전 검사는 더 나아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담보대출에 카드론까지 받아 에이미에게 1억원가량을 건넸다.

검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며 "전 검사는 에이미에게 남자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했고 연민의 정을 느껴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익의 대변자이자 독립된 관청으로서의 검사라는 직분의 중대성을 망각한 채 저지른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다.

/조현정기자 mikan@metroseoul.co.kr

"할머니들 힘내세요" 다국적 응원 22일 오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성 인권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메시지를 적은 나비 모양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몸속 환경호르몬' 어린이>어른

비스페놀A 등 최대 1.6배

우리나라 어린이의 체내에 축적된 환경호르몬 농도가 성인의 1.6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전국 초·중·고(만 6~18세) 어린이·청소년 1820명을 대상으로 체내 유해물질 농도와 환경 노출 등을 조사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추정되는 비스페놀 A 농도는 어린이(만 6~11세)가 1.41㎍/g cr로, 성인(만 19세 이상) 0.88㎍/g cr의 1.6배에 달했다. 또 형중 납·수은 등 중금속 농도도 선진국 어린이보다 우리나라 어린이가 최대 7배 높았다.

과학원은 "우리나라 어린이의 환경호르몬 농도와 생식기 발달 및 내분비계 이상 등과 관련성이 의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의 체내 환경호르몬 농도 수치가 높은 까닭은 바닥에 앉아 놀고 손가락을 빠는 등 행동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yun@

한복 설빔 설을 10여 일 앞둔 22일 엄마와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 한복 상점을 찾은 한 어린이가 한복을 입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방부대 군 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국방부가 군내 여성 인력 보호를 위해 전방부대 군 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한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22일 군내 여성 인력 경력 단절 해소 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전방부대 군 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분만 취약지역에서 근무 중인 임신 여군에게 주어지는 태아 검진 휴가도 월 1회에서 임신 28주 이상일 때는 월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봉급액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을 1년까지만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장 3년인 휴직 기간 내내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자격 부여에 필요한 복무 기간으로 인정하는 기준도 현재는 자녀 1인당 1년이지만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 최장 3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민준기자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연내 97곳 신설

서울시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97곳을 새로 개원해 6179명의 아동을 추가로 받는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2일 "2012년 시작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계획을 통해 이미 34곳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57곳, 하반기 4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가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67곳은 건물을 사거나 새로 짓지 않고도 확충에 성공한 '비용 절감형 서울 모델' 이다. 이는 건물 매입·신축형 비용의 8%가량만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시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최대한 이용해 지난해 중앙정부로부터 처음 예산을 지원받았고 올해도 3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 실장은 "서울에서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한 아동이 10만여 명에 이르지만 1만2000여 명만 수용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건설 비용이 적은 비용절감형 모델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100여 곳을 추가로 개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민준기자

영등포구 북콘서트 매달 개최

서울시 영등포구가 주민 참여형 독서운동인 '2014년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북콘서트는 작가나 오피니언 리더 등 명사가 강연자로 참여하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초등학생 및 영등포 구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상반기 전문재능 봉사자 교육

서울시 용산구는 2월부터 '해피스마일 심화 과정'과 '공연지 공예 과정'의 상반기 전문 재능 자원봉사자 교육을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발마사지, 네일아트 등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 자원봉사 교육은 용산 구민이면서 자원봉사 기본 교육 이수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9일까지 전통시장 설 이벤트

서울시 금천구는 설을 맞아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2014 전통시장 설명절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29일까지 남문시장, 현대시장, 대명여울빛거리, 은행나무시장, 독산동 우시장 등 5개 전통시장·상점가에서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현

한국화가 김기창 별세

2001년 1월 23일 한국화단의 거목 운보 김기창이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7세때 장티푸스의 고열로 청각을 잃은 그는 17세에 이당 김은호 문하에서 한국화를 배웠다. 일제강점기 선전에 수차례 입선하며 유명 작가가 됐으나 친일 행위로 큰 오점을 남겼다. 해방 후 실험적인 작품으로 변신을 거듭한 운보는 '청록산수' '바보산수' 등 한국화의 독자적 경지를 개척했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활동을 열정적으로 이끌었다.

폭설이 그린 산수화 강릉지역에 폭설이 내린 22일 1653년에 지어진 강릉 선교장의 방해정(강원유형문화재 제50호)이 눈에 쌓여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바가지 피해 30만원 보상

올해부터 서울 시내 관광특구(잠실 제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바가지' 피해를 보면 관광경찰과 관광보안관의 현장 조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광 사업자 단체인 서울시관광협회는 22일 7개 관광특구 내 숙박·음식·쇼핑업체(노점상 제외)에서 이런 내용의 피해구제제도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서울시 관광협회의 시내 7개 관광특구(명동·남대문·북창동, 다동·무교동, 종로·청계, 동대문, 이태원) 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한다. 목표 기금액은 1억원이고 지금까지 8000만원이 조성됐다. /김다혜기자

값싸고 예쁜 교복 22일 '사랑의 교복 나누기 행사'가 열린 아름다운가게 성북 청운 동 매장에서 한 여학생이 교복을 입어보고 있다. 청운교육지원청은 재학생이 입지 않는 교복들을 모아 수선·세탁을 거쳐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한다. /연합뉴스

중무장 '전쟁' 나섰다 잡힌 대구 최대 조폭

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들이 재상(재개발사업)권을 두고 포항지역 폭력조직과 큰 싸움을 벌이기 위해 흉기 등으로 무장한 채 나섰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이권을 두고 다른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 한 혐의로 동성로파 부두목 박모(45)씨와 행동대원 등 16명을 구속했다. 행동대원 안모(35)씨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권모(40)씨 등 11명을 지명수배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조직원들에게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나 둔기를 준비시킨 뒤 차량 6대에 나눠 타고 포항의 한 해수욕장으로 가 포항지역 폭력조직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벌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흉기 등을 사는 장면과 포항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간 집결지로 이용한 고속도로 휴게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으로 검거했다. /김다혜기자

성관계 동영상 유포뒤 도피 미국인 영어강사 국내 송환

법무부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미국인 영어강사 A(29)씨를 22일 아르메니아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2010년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같은 해 10월 중국으로 도피했다.

A씨는 우리나라가 2011년 12월 가입한 범죄인 인도 유럽협약의 첫 사례가 됐다. /김다혜기자

카드 이어 홈쇼핑까지…

롯데그룹, 전 임원 거액 리베이트 검찰수사에 전전긍긍 "방송 노출대가 수억 받아"

겨울철 수난 구조 훈련 22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홍천강에서 소방방재청 119구조본부가 2014 동계 수난구조훈련을 실시,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시민이 있다는 상황을 연출해 인명을 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재직 시절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롯데홈쇼핑 전직 임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이번 조사가 국세청의 롯데쇼핑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와 맞물릴 경우 그룹 전체로 불똥이 튈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롯데홈쇼핑 전직 임원 1명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급으로 알려진 이 전직 임원은 롯데홈쇼핑 근무 당시 방송에 특정 업체의 상품을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이번 사건이 해당 임원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뇌물 금액이 예상보다 거액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른 전·현직 임직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홈쇼핑'을 2006년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TV와 인터넷·모바일 분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연간 매출은 2조4000억~5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롯데그룹의 핵심인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 고발이 있을 경우 검찰의 사정칼날이 롯데그룹 전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그룹 경영진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유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한영일기자 anes@metroseoul.co.kr

환자 턱뼈 모아 탑 세운 강남 성형외과

유리통에 넣어 로비 전시 "의료폐기물 관리법 위반"

/A성형외과 홈페이지

강남의 A성형외과가 환자들의 턱뼈를 모아 만든 '턱뼈탑'(사진)을 로비에 세워 충격을 주고 있다.

A성형외과는 병원장의 수술 집도 횟수를 홍보하기 위해 턱뼈탑 사진을 홈페이지 병원소개란에 게재하며 "저희는 수술 후 절제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드립니다"라고 홍보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리 사각기둥 안에 병원에서 깎아낸 환자들의 턱뼈가 가득 쌓여있다.

이와 관련, 강남구청 청경과는 22일 A성형외과를 의료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조사했다.

규정에서는 인체 조직물과 같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 폐기물은 지정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혜기자

경희사이버대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다음달 14일까지 2014학년도 1학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신입생의 경우 고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편입생은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에서 35학점 또는 70학점 이상 수료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한성대, 한전산업개발과 협약

한성대학교가 21일 한성대 미래관 회의실에서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와 공동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한성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 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의 활용, 현장 기술 전수 및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에 관한 상호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

코이카 3대 조직개혁안 발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비위 행위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는 등 3대 조직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코이카는 22일 올해를 혁신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3대 개혁 방안으로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 확립 ▲윤리경영 체제 강화 ▲사업 수행체계 선진화를 제시했다.

벼락맞은 예수상 수리 벼락으로 손상을 입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거대 예수상의 팔을 위해 21일(현지시간) 한 작업자가 살피고 있다. 이 예수상은 지난 16일 폭풍우와 벼락으로 손가락 끝부분이 떨어져나가고 머리 부분도 손상돼 이날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1931년 건립된 예수상은 높이 38m, 가로 30m 크기로, 1년에 평균 6차례 정도 벼락을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은 사진은 예수상의 오른손 손가락 끝부분이 떨어져나간 모습. /AP 연합뉴스

ICIJ "중국 주석 일가, 원자바오 전 총리 아들 등 4270조 역외탈세"

시진핑 개혁 치명타?

중국 정부가 부패 척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전 현직 최고지도부의 친인척들이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탈세를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정의 칼을 빼든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매형도 포함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22일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 50여 개 언론과 공동 취재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 취재에는 중국 언론도 참여했지만 당국의 경고를 받아 그만뒀다고 ICIJ는 덧붙였다.

시 주석 누나의 남편인 덩자구이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부동산 개발회사 엑설런스 에포트 프로퍼티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덩은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부동산 개발업자다.

원 전 총리의 아들 원윈쑹도 2006년 버진아일랜드 '트렌드 골드 컨설팅'의 단독 임원이자 주주였다. 원 전 총리의 사위도 2004년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해 임원 및 주주로 활동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덩샤오핑과 리펑 전 총리, 후진타오 전 주석 등 중국 최고 권력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전 현직 위원 5명의 친인척이 포함됐다. 또한 순자산 6조8000억원을 보유한 중국 최고 여성 갑부 양후이옌과 부동산 개발회사 소호차이나의 설립자인 장신 등 재계 유력 인사 16명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없다. ICIJ는 이런 점 때문에 조세 회피가 가능했으며 2000년부터 최대 4조 달러(약 4270조원) 규모의 자산이 추적을 받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가장 가난한 대통령'의 섹시한 비서

비키니·누드 사진 등 화제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으로 유명한 호세 무히카(78·오른쪽 사진) 우루과이 대통령의 섹시한 비서가 화제가 되고 있다.

브라질 일간지 폴라 데 상파울루는 무히카 대통령의 비서인 파비아나 레이스(33·왼쪽)가 2002년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모델, 배우, 댄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최근 아르헨티나 잡지 노티시아스에 비키니 차림으로 등장한 모습도 공개됐다. 레이스는 2010년 말에도 베이비라는 우루과이 잡지가 제작한 2011년 달력에 누드로 등장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우루과이에서 레이스의 이런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레이스는 "유감스럽게도 우루과이에서는 예술만으로 먹고살기는 어렵다"는 말로 자신이 여러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한편 레이스를 고용한 무히카 대통령은 1만2000달러(약 1280만원)에 불과한 월급마저 90%를 기부해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엎어진 용산…끝나지 않은 소송

"코레일에도 사업무산 책임" 법원 판결에 향후 드림허브와 뜨거운 공방 예고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두고 땅 주인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PFV(드림허브)가 치열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코레일의 책임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터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달 9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파생채권 조사 확정 판결에서 드림허브의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이행 보증금 516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드림허브는 앞서 2007년 용산 부지를 코레일로부터 8조원에 매입하면서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2400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키로 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사업이 무산되면서 코레일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 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회수를 위해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이 회사가 가진 지분 516억원에 대해 파생채권조사확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드림허브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또 드림허브가 2500억원의 유상증자(또는 전환사채 발행)는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이 이를 일관되게 반대한 사실을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용산 개발 무산을 둘러싸고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됐다. 사업 실패의 책임을 두고 그동안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사업협약서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라고 지적한 반면,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을 위한 법원 결정일 뿐 앞으로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코레일은 오는 23일 드림허브를 상대로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용산 사업부지의 61%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지금까지 반환한 토지 대금은 2조9000억원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1조2000억원을 돌려줘야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또 코레일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면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pso9910@metroseoul.co.kr

'1분 53원' 자릿세 받는 카페

글로벌 이코노미

러시아 지페르블라트 이색 마케팅 인기 몰이 최근 英 런던에도 진출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공짜인 카페가 있다. 음료값은 받는 대신 분당 '자릿세'만 계산하는 러시아의 이색 카페 '지페르블라트'(시계판)'. 이 카페가 최근 영국 런던에 첫 번째 분점을 내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1분 단위로 카페 이용료를 책정하는 '시계 카페' 지페르블라트. 손님들은 카페에 오면 알람시계를 먼저 챙겨 도착 시간을 기록하고 가게 문을 나설 때까지 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카페 이용료는 1분에 3펜스(53원). 1시간이면 1.8파운드(약 3100원)가 된다.

카페의 분위기는 밝고 활기차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무장한 브랜드 커피 전문점과는 거리가 멀다. 친구들과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 기타를 연주하는 남성 등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는 젊은 남녀들로 가득하다. 스마트 세대를 위한 와이파이망도 잘 갖춰져 있다.

손님들은 커피 추출 기계에서 자유롭게 커피를 가져다가 마신다. 케이크와 비스킷, 토스트, 과일 등도 모두 무료다. 심지어 집에서 간식거리를 싸가지고 가서 카페 안에서 먹을 수도 있다. 카페에서 사용한 접시를 부엌에서 직접 닦아 정리해둘 수도 있다. 손님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한 접시를 닦을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설거지를 하는 손님들이 많다.

지페르블라트는 개성 만점 마케팅 전략으로 러시아에서 이미 그 인기를 입증했다. 지난 2년 새 러시아 주요 도시와 구소련 국가에 9개의 지점이 생겼으며 월평균 고객 수는 3만명에 달한다. 주 고객은 대학생을 비롯한 20대 젊은 층이다.

영국 런던의 지페르블라트에서 손님들이 커피를 위해 시계를 올려둔 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 /비즈니스 인사이더

지페르블라트의 이반 미틴 대표는 영국 일간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분당 이용료만 지불하고 커피를 마신다는 콘셉트에 대한 런던 시민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다"면서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단골손님이 많이 생겼다"고 밝혔다. 미틴 대표는 이어 "손님들이 카페에서 접시를 닦기 위해 개수대 근처에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흥미로웠다"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카페의 부엌까지 사교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어직도 북새통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카드센터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를 우려해 새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주택대출 고정·비거치식 증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대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5.9%,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18.7%로 조사됐다. 고정금리 비중은 1년 전(14.2%)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7조2000억원이 증가한 5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거치식 비중은 전년보다 4.8%포인트 올랐다. 대출 잔액은 45조3000억원에서 62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고정금리 비중은 SC은행(39.0%), 씨티은행(31.0%), 기업은행(18.8%) 순이고, 비거치식은 SC은행(28.6%), 씨티은행(28.3%), 국민은행(23.0%) 순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유동화 상품인 적격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는 국고채 금리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적격대출 취급 실적은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이고 이에 대한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근 지기자

market index <22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70.42 (+6.53)	523.07 (+2.08)	2.92 (+0.01)	1067.00 (원/달러)

뉴스&뉴스

브라질 플라스틱 슈즈 '멜리사'
브라질 플라스틱 슈즈 브랜드 '멜리사'가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갤러리에서 한국 론칭을 기념해 다양한 신발들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ABS 발행액 역대 최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총액이 51조3000억원으로 전년 47조5000억원 대비 7.8% 증가해 역대 최대금액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 증권,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는 부실 채권 등을 기초로 19조1000억원의 ABS를 발행해 13.6% 증가한 반면, 일반기업은 매출채권 대출채권을 기초로 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 /박정원기자

국내은행 수익 회복 전망

올해 국내은행의 자산 규모와 수익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2014년 은행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은행 전체 수익이 지난해보다 40%가량 늘어난 7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자이익은 지난해보다 3조원 늘어난 38조원, 비이자이익은 2조5000억원, 충당금 전입액은 9조2500억원 수준으로 각각 가정했다. /김민지기자

연금복권520 제134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1조	217838
		1조	354545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713630
4등	100만원	각조	35902
5등	2만원	각조	640
6등	2000원	각조	82 63
7등	1000원	각조	2 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081
발행·인쇄인 남광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6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44
2005년 5월 30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라00030)

아베노믹스 양적완화 지속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존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22일 새해 첫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본원통화공급을 연간 60조~70조 엔 늘리는 기존 정책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 성명에서 "일본 경제가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소비세 인상에 앞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도 일치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선 '현상 유지'로 결론날 것으로 전망했다"며 "아직 변화를 모색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현재로선 3분기 소비와 성장 흐름을 본 뒤 점진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은행은 또 내년 4월 시작되는 2015 회계연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동안 1.25%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한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데서 다소 물러선 것으로, 추가 완화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

2대주주의 습격 시나리오

녹십자, 피델리티와 손잡으면 지주사 전환 물거품

Issue&View
일동제약 적대적 M&A 위기
/김형정기자 kjkim@metroseoul.co.kr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일동제약이 임시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녹십자가 최근 일동제약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최대주주인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 측(34.16%)과의 지분율 격차를 5% 이내로 좁혔기 때문이다. 녹십자는 수년째 '단순투자'로 밝히던 지분 보유 목적도 이번에 '경영 참여'로 바꿨다.

이에 시장에서는 녹십자가 일동제약의 지주사 전환을 막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제기했다.

일동제약의 2대주주로 떠오른 녹십자(29.36%)가 일동제약 지분 9.95%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인 피델리티와 손잡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일동제약 측에서는 녹십자의 경영 참여에 "위의 없는 시너지는 이불성설"이라며 강력하게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일동제약은 오는 24일 지주사 전환 등을 논의하는 임시주총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발표한 일동제약은 지난 12월 승인 절차를 거쳐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를 확정하게 된다.

지주사 전환이 임시주총에서 통과되면 일동제약 주식은 다음달 말 거래 정지된다. 이후 일동제약은 3월에 사업 부문과 투자 부문으로 기업 분할을 실시하고 4월 초에 분할 재상장을 추진하게 된다.

현 일동제약은 투자 부문의 종속 법인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녹십자가 임시주총에서 '반대' 표를 행사하고 피델리티도 가세할 경우, 일동제약의 이 같은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증권가에서는 일동제약과 녹십자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녹십자는 자사가 취약한 일반의약품 부문의 시장점유율을 이번 M&A로 가지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증권사의 연구원은 "지난해 한독약품이 태평양제약의 일반의약품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도 했으나 일동제약 녹십자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며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적대적 M&A 기대감에 주가가 들썩이고 있어 당분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증시 전문가는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주가가 올랐다가 내리는 양상을 보이므로 개인투자자들은 추격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5cm 대물 참조기 "온가족 먹어도 되겠네" 2일 서울시 강남구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관계자들이 35cm 이상 크기의 대물 참조기를 소개하고 있다. 수도권 8개 점에서 '100마리 한정' 판매하며 가격은 마리당 5만원. /연합뉴스

'100억 횡령女'에 포스코건설 발칵

포스코건설에서 사내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횡령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횡령 기간도 7년 이상으로 알려졌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공사 현장 경리 직원의 횡령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계약직 경리 직원이 빼돌린 공금은 100억원대로 보도됐지만 포스코건설에서 30억원이라고 공식 발표됐다. 하지만 내부 조사 결과 30억원의 횡령액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횡령 기간도 2년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7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포스코건설에서 계약직 여직원이 7년간 100억원을 넘게 빼돌리는 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여직원은 공사장 근로자가 숙소로 쓰는 아파트 보증금을 부풀려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을 사는 데 횡령한 돈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횡령 금액을 축소한 사실이 없으며 횡령 기간도 2년이다"고 해명했다. /박선옥기자 pso@

수도권·지방 집값 '지옥과 천당'

금융위기 이후 5년동안 3000만원↓ 4000만원↑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지방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월 현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수도권 3억6307만원, 지방 1억7917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수도권은 3억9144만원에서 2837만원이 줄었고, 지방은 1억3849만원에서 4068만원이 늘었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2009년 3억9144만원에서 2010년 4억333만원으로 1년 사이 1189만원이 증가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린 덕분이다.

하지만 계속된 경기 침체 및 대출 규제 발표 등의 영향으로 2011년 3억9420만원으로 913만원이 감소했고, 이후 계속해서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줄곧 상승세를 띠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신규 공급 물량이 적었던 데다 개발 호재가 더해지며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수도권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데 반해 지방은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주택 시장이 호황을 누렸다"며 "올해는 부동산 시장에 회복 조짐을 보이는 만큼 수도권 아파트의 움직임으로 기대가 모아진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브릭스' 잇는 경제 신흥국 '민트' 주목

오닐 전 골드만삭스 회장 올해 주목할 투자국 꼽아

"올해는 브릭스(BRICs) 대신 '민트(MINTs)'에 주목하라"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등 4개국을 묶어 일컫는 민트가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뒤를 잇는 경제 신흥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브릭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짐 오닐 전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회장이 브릭스를 대신해 새롭게 자고 올라오는 멕시코·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터키 등 이른바 민트 국가들의 성장을 예고했다. 오닐 전 회장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민트 국가를 경제 신흥국으로 주목해야 한다"며 "이들 국가가 브릭스처럼 협력체를 만들어 영향력을 높일 경우,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민트 국가들을 주목하는 배경으로 ▲경제성장에 유리한 인구 구조 ▲교역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 ▲풍부한 자원 등을 꼽았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와 멕시코는 각각 거대한 소비 시장인 중국, 미국과 가깝고, 터키는 유럽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잇는 위치에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브릭스를 대신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시장"이라며 "물적·인적 교류를 통해 산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민트 국가들의 잠재적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중 인도네시아와 터키는 지난해 들어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신흥국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개별 국가들의 실적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지기자

작년 기업 부실공시 과태료 7억8000만원

공정위 231개사 징계… 효성·세아·코오롱 그룹만 3억3000만원 넘어

#자동차 시트 인조잔디를 생산하는 코오롱글로텍. 지난해 새로 이사가 취임하면서 이를 53일간이나 공시하지 않고 지연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효성·세아·코오롱 그룹이 2010년부터 2013년 5월 중 발표한 부실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2009년 1월~2013년 5월)로 총 3억319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한 이들을 포함한 19개 기업집단 소속 231개사가 공시제도 위반으로 총 7억8115만원의 과태료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3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세 그룹 및 현대·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 중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기업 중 상장사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재무 현황 중 현금성 자산 누락 기재 ▲외부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누락 등의 누락 공시 및 지연 공시가 있었으며 비상장사는 ▲임원 변동사항 등과 관련한 누락 공시 및 지연 공시 또는 미공시로 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한원필 과장은 "임원 변동 관련 부실 공시는 전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적발 건수의 60%인 135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세 그룹의 과태료는 각각 효성그룹이 1억1596만원, 코오롱그룹이 1억1535만원, 세아그룹이 1억71만원 등이다.

이외에 공정위가 적발한 19개 대기업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5), S-오일(2), 동국제강(15), 케이씨씨(9), 한진중공업(9), 한국지엠(3), 오씨아이(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흥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케이티앤지(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의 231개사다. 여기에는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 현대, 신세계 그룹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시 점검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소유 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 경영활동의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시 담당자의 제도 미숙지로 인해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시 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공시 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황주원기자 bee@metroseoul.co.kr

인피니티 Q50 사전계약 돌입

인피니티는 다음달 11일 국내 공식 출시를 앞둔 스포츠 세단 Q50(사진)의 사전 계약을 22일부터 전국 인피니티 전시장에서 실시한다.

Q50은 2.2ℓ 디젤 모델(Q50 2.2d)과 3.5ℓ 하이브리드 모델(Q50S Hybrid)로 출시될 예정이다. 디젤은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 두 사양이다. 2월 11일까지 계약을 마친 후 2월 중 출고하는 고객들에게는 17인치에서 19인치로 휠 인치 업 혜택을 제공한다.

Q50 2.2d는 최고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직렬 4기통 2.2ℓ 직분사 디젤 터보 엔진을 탑재했고, Q50S 하이브리드는 50kW(68마력) 전기모터와 6기통 3.5ℓ 가솔린 엔진(306마력)을 장착해 총 출력 364마력을 자랑한다. 공인 복합연비는 디젤과 하이브리드가 각각 15.1km/ℓ와 12.6km/ℓ다.

Q50은 첨단 기술과 강렬한 디자인,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퍼포먼스 등의 특장점을 겸비하고 있다.

인피니티를 이끌고 있는 다케히코 기쿠치 대표이사는 "Q50은 지난 8월 북미 출시 직후 월 판매량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시키며 인피니티를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며 "미래형 럭셔리 세단의 기준을 제시할 최첨단 기술을 통해 Q50의 매력을 많은 고객들에게 선보여 인피니티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성훈기자

'멀티 터치 테이블' 재미있어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교육용 멀티 터치 테이블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리더 16인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기

현대차 페이스북 게재

현대자동차는 페이스북을 통해 '뉴 리더 16인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대한 진솔한 평가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문학, 예술, 영화감독,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리더들이 밝힌 그랜저 하이브리드 2주간 시승 소감이 에세이 형식으로 페이스북에 게재된다.

뉴 리더로는 최근 대안 건물로 주목받은 '땅콩집' 등 개인 사연이 담긴 목조 건축물을 짓는 건축가 김동희씨를 비롯해 ▲2013년 '배우는 배우다' 연출을 담당한 신연식 감독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로 미국 아이디어상을 수상한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 등이 선정됐다.

권순철 서울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어렸을 적부터 꿈의 자동차였던 그랜저를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며 "현대차 특유의 운전자를 위한 편의 사양과 하이브리드의 성능을 체험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현대차는 페이스북에 게재된 16인의 시승기를 읽고 이벤트 참여하기를 선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출시 후 30년 가까이 한국 대표 고급 세단의 자리를 지키는 그랜저의 명성에 우수한 연비, 합리적 가격 등 경제성이 더해진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우수성을 유명 인물의 다양한 시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sh@

"국내 자동차업계 경쟁환경 악화 전망"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올해 국내의 경기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으면서 자동차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 최근 펴낸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위기 국면이 마무리되고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 출구전략 등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된 대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많은 리스크와 불확실성도 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 양적완화 축소 파장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 ▲유럽 경기 회복 지연 ▲브릭스(BRICs) 성장 둔화 우려 ▲아베노믹스 부작용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원고·엔저 장기화 ▲내수경기 위축 ▲가계 재무구조 악화 ▲기업 구조조정 확대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안 요인이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원고·엔저는 수출 경쟁력 악화에 따른 수출경기 부진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을 통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 기업의 구조조정 확대 등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도 내수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 악화로 인해 정부의 경기 부양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세계경제 회복 등 객관적인 경영 환경은 나아지겠지만 주관적인 경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자동차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등 객관적인 경영 환경은 작년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차의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금융위기 이후 누려왔던 신차 출시 확대, 중소형차 수요 증가, 경쟁업체의 경쟁력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이점이 사라지고 미국·일본·유럽 업체의 경쟁력이 회복되는 등 주관적인 경쟁 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는 위기 이전과는 달리 전반적인 저성장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 또는 산업 간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품질·디자인 등의 기본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ferrari@

'제4이통'이 불편한 그들

알뜰폰, 정부지원 축소 우려 LG유플, 가격경쟁력서 밀릴까 걱정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하면 LG유플러스와 알뜰폰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

정부가 2.5GHz 대역 주파수를 제4이통에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하면서 제4이통 출범이 가시화됐다. 정부는 주파수 신청 접수를 거쳐 오는 3월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54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과연 제4이통이 탄생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 때문에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역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제4이통 탄생을 반기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4통신컨소시엄(KMI)이 제4이통 사업권 획득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다음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KMI는 지난 2010년 6월 처음 제4이통 사업허가 신청을 한 뒤 네 차례나 승인 불허 판정을 받았다. 사업허가 불허 판정의 주된 이유는 재무 건전성 때문이었다. 이번 다섯 번째 도전에서 제4이통에 도전하는 KMI와 IST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엔 자신 있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제4이통이 탄생할 경우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LG유플러스와 알뜰폰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기존 이통사뿐 아니라 알뜰폰 업계 역시 제4이통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알뜰폰 업계는 혹여 제4이통 탄생 시 정부의 정책 지원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이통 3사 중 차별화된 서비스보다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본다는 이미지가 강해 보다 값싼 제4이통이 등장한다면 가입자를 빼앗길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알뜰폰의 경우 정부의 지원 속에 이제 커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4이통의 탄생은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4이통 주파수 경매를 위한 최저 경매가를 두고서도 예비 사업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 재무적인 부분이 충분히 갖춰졌는지도 아직 의문"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확한 평가 속에 제4이통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덩치만 키운 수출 7위국 점유율 1위 품목 64개뿐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세계 7위이지만 세계 점유율 1위 품목 순위는 14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 1위 자리를 빼앗기는 제품이 늘어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64개로 전년에 비해 3개 늘었다. 세계 순위는 15위에서 14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화학 제품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철강 10개, 전자기계·섬유 각 7개, 수송기계·광산물 각 3개, 농수산물 각 2개씩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 제품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수송기계, 철강, 섬유 제품은 감소세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세계 1위 품목 수는 64개(2010년)→60개(2011년)→64개(2012년) 등으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반면 중국은 1351개→1417개→1485개 등으로 꾸준히 확대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2년 우리나라로부터 6개 품목의 1위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위를 유지하는 제품 중에서도 7개는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가 5% 미만으로 경합 중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독일은 세계 점유율 1위 품목이 703개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미국(603개), 일본(231개), 이탈리아(228개), 네덜란드(144개), 인도(138개), 프랑스(104개), 벨기에(94개), 영국(81개)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에서는 홍콩(65개)이 우리나라를 앞섰고 인도네시아(60개)가 바짝 추격 중이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

경력단절 여성 취업 돕는 CJ 리턴십 22일 서울 CGV 여의도에서 열린 'CJ 리턴십 2014 상반기 채용설명회'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CJ그룹 인사담당자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있다. CJ그룹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젝트인 'CJ 리턴십'을 통해 품질 분석(CJ제일제당), 베이커리 연구 개발(CJ푸드빌), 웹디자인(CJ E&M) 등의 분야에서 13다 규모의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LTE보다 1000배 빠른 5G 2020년 상용화 박차

정부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1000배 빠른 5세대(5G) 이동통신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개최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타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진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단말 시장 1위, 장비 시장 점유율 20%, 국제 표준특허 경쟁력 1위, 일자리 1만6000개 창출을 목표로 7년간(2014~2020년) 정부·민간 공동으로 약 1조6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향후 2020년부터 2026년 5G 기기·장비의 수출 및 내수를 통해 총 331조원의 매출과 국내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68조원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llegible] 기자

암·골절·사망 보장 다 가능한 보험

AIG 무배당 슈퍼(Super)큰병이기는보험1304는 암 보장, 골절 보장, 사망 보장 모두에 대한 선택계약이 가능한 상품이다. 암 진단 시 진단금은 물론 선택계약으로 수술비, 입원일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가 별도로 보장된다. 여기에 큰 병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이 보장돼 암과 큰 병 모두 대비 가능하다. 특히 다른 암보험이 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어 예전에 들어둔 암보험 보장금액이 적다면 AIG 무배당 Super큰병이기는보험1304로 암 보장 금액을 더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골절 보장과 사망 보장은 선택 보장받을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 골절에도 골절 진단, 수술 의료비용과 화상 진단 의료비용이 보장된다.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든든하게 지급해줘 남겨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보상 내용 및 보험료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통해 상담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문의 전화: 080-432-0168

분양형 호텔 '리젠트 마린 제주' 신개념 수익부동산

최근 분양형 호텔이 제2의 수익부동산 상품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내·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호텔 '리젠트마린 제주'가 내달 분양에 들어간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호텔 리젠트마린 제주는 지하 2층~지상 11층, 전체 327실 규모로 객실은 25~47㎡로 구성됐다.

전체 객실의 73%에서 제주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나머지 27%도 한라산 조망권이 확보된다. 여기에 제주국제여객선터미널과 제주국제공항이 각각 차량 5분과 10분대 거리로 접근성이 좋다.

관광객을 위한 이마트, 동문시장 등 쇼핑·편의시설과도 가깝고, 2015년 완공 예정인 탐라문화광장도 인근에 들어선다. 이곳으로는 카페거리와 음식테마거리, 광장 등이 조성된다.

내부는 알찬 부대시설과 넓은 객실 공간을 확보했다. 1층과 2층에 연회장과 세미나실,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등이 배치되고, 3층에는 야외수영장이 설계된다. 특히 야외수영장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어 투숙객들에게 최고의 휴식 공간이 될 전망이다. 문의: (02)583-4300 /[illegible] 기자 [illegible]

정보유출 유탄 맞은 구글웹 크롬

카드 해지·재발급·연말정산 업무 IE서만 가능 탓 최근 국내 점유율 감소

국내에서 20%의 점유율을 유지했던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이 지난 17~19일 16%까지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는 80%를 넘어섰다. IE가 80%를 돌파한 것은 201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크롬은 지난해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IE와 시장을 양분했고 국내에서도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대중화되면서 PC에서도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구글이 MS가 가진 것을 야금야금 빼앗아 왔던 지금까지의 추세와는 반대 양상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관련 정보 조회는 물론 카드 해지, 재발급 등의 업무가 IE에서만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자신의 카드정보가 유출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창을 닫고 IE로 웹을 열어야 했던 것이다. 스마트폰에서라도 이 작업이 가능했더라면 사정이 달라졌겠지만 모바일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지 않았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업무가 몰린 것도 한몫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제출용 서류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넣어야 하는데 이 작업 역시 IE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연말정산 작업을 도와주는 관련 사이트들이 IE에 최적화된 경우가 많아 크롬 유저라도 IE를 가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IE가 아닌 웹브라우저에서도 카드사 홈페이지 업무나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전비 금융기관은 보안을 이유로 IE에서 사이트가 최적화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간 IE 유저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그 외의 웹브라우저의 최적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중앙점을 서비스하는 중인터넷 관계자는 "크롬도 요즘은 은행이나 쇼핑몰에서 서서히 돈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암호화 과정에 드는 기술적인 처리를 IE가 아닌 웹브라우저에도 하느냐의 여부일 뿐"이라며 "모든 웹브라우저 스펙에서도 IE처럼 카드사 업무나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떡국떡 무게 '2014g' 맞히기

농협유통은 22일 서울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떡국떡 2014g 무게를 맞히는 게임을 진행했다. /농협유통 제공

아파트 브랜드 가치 래미안 아슬아슬 1위

국내 아파트 브랜드 가운데 래미안 이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의 약진으로 그간 구축했던 독보적인 입지는 흔들리게 됐다.

브랜드 가치 평가 전문회사인 브랜드스탁은 2013년 아파트 부문 연간 브랜드가치평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837.8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음으로 롯데건설 '롯데캐슬'(821.33점), 대림산업 'e편한세상'(816.54점), GS건설 '자이'(799.73점), 대우건설 '푸르지오'(798.49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래미안은 2010년만 하더라도 845.64점으로 당시 2위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783.70점)보다 월등히 점수가 높았지만 이번에는 2~3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2010년 763.98점으로 6위에 머물렀던 롯데캐슬은 점수가 수직 상승하며 2위까지 올랐다. 또 4위와 5위였던 e편한세상(786.58점), 자이(779.91점)도 점수가 눈에 띄게 오르며 이번에는 3위와 4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힐스테이트는 이번 조사에서 6위로 내려앉았다. /배한욱기자

SK수펙스 ICT총괄직에 임형규 부회장 영입 눈길

SK그룹은 수펙스추구협의회에 ICT기술·성장추진 총괄직을 신설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SK는 이의 일환으로 삼성그룹 최고기술경영자(CTO) 출신인 임형규 전 사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해 ICT 분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비전을 설계하는 역할을 다음달 초부터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임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개발본부장과 시스템 LSI사업부장,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 삼성종합기술원장, 신사업팀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연구·개발 분야의 기술 인재다.

최태원 회장은 임 부회장을 추천했고, 그룹 내 관련 최고경영자(CEO)들이 삼고초려한 끝에 영입이 성사됐다. /강태균기자 kost@

'미래의 스티브 잡스' 꿈꾸는 아이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실시하는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설 알바 '두둑한 일급' 다 모여라

알바몬이 알려주는 명절연휴 '단기 일자리' 눈길

설을 앞두고 주머니를 두둑이 채울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의 도움을 받아 설 명절을 풍성하게 해줄 알바를 알아본다.

◆주부도 OK—백화점, 대형 할인마트들이 설 선물세트 판매를 위한 판매 판촉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 주부를 상대로 한 판촉 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살림 경험이 있는 여성 지원자를 선호한다.

급여는 일급을 기준으로 7만원 내외다. 업체에 따라 근무복으로 앞치마나 특정 유니폼을 지정하기도 한다.

◆일당이 센 택배 알바—명절을 앞두고 택배 관련 업계도 단기 알바생 찾기에 혈안이다.

택배 배송 및 배송 보조는 물론 물류 상하차, 스티커 부착 및 전산 입력, 택배 접수 등 업무도 다양하다. 시간당 6000원 내외에서 많게는 일당 10만원 이상도 챙길 수 있다.

◆포장 알바도 인기—단순 노동이 자신이라면 선신 제조 포장 알바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절 선물세트 포장이나 제조, 떡집에서의 떡 제조나 포장 알바 등이 대표적이다.

시급은 7000원 내외지만 긴 근무 시간이 단점이다.

◆인바운드 알바 어시나요—목소리에 자신 있다면 인바운드 알바가 제격이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명절 대목을 앞두고 밀려드는 전화 주문 접수를 소화하기 위해 1주일 이하 단기 알바를 모집하곤 한다. 고졸 이상 학력자로 기초적 수준의 컴퓨터 능력을 보유한 표준어 구사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설 연휴 단기 알바도 눈길—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싫다면 설 연휴 알바에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편의점이나 찜질방,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연휴 기간 근무할 알바생 모집이 한창이다.

알바몬의 날짜별 단기알바 서비스를 이용하면 희망 날짜에 일할 수 있는 알바를 보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희림기자

국내 기업 9개 업종만 글로벌 톱10 리스트에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26개 주요 업종 중 글로벌 톱 10 순위에 오른 업종이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종은 IT와 조선 등 2개 분야에 불과했다. 한국 기업이 2위에 오른 업종은 철강, 반도체, 휴대전화 등 3개였다.

IT업종의 경우 삼성전자(생활가전 부문 제외)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매출 1243억 달러로 애플(1164억 달러), HP(835억 달러), 지멘스(780억 달러), IBM(721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587억 달러) 등을 제치고 글로벌 톱에 올랐다.

조선업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작년 3분기 누적 367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중공업(3위), 대우조선해양(4위), 현대미포조선(6위), STX조선해양(7위), 한진중공업(8위) 등 톱 10 내에 국내 기업이 6개나 포진했다.

철강 부문에서는 포스코가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 423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반도체 부문에선 삼성전자가 미국 인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휴대전화 부문 역시 삼성전자가 애플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 톱 10에 포함된 업종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담배, 해운 등 4개 업종이었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현대·기아차는 세계시장에서 6위에 올랐으며 자동차부품 부문은 현대모비스가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담배 부문에선 KT&G가 세계 9위를 기록했으며 해운은 한진해운이 6위, 현대상선이 8위에 올랐다.

화학 부문에선 LG화학이 12위, 롯데케미칼 16위, SK이노베이션 17위, 삼성토탈 18위, 한화케미칼 19위로 20위 내에 국내 기업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기자

시대를 뛰어넘는 판타지 활극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변한다

2014. 01.17 OPEN 대학로 AN아트홀

‘택배 스미싱’ 조심하세요

설연휴 시즌 타고 급증세 '연말정산 스미싱'도 늘어

[우체국택배]등기우편 배송불가(주소지 불명) 주소지 변경/확인.

혹시 휴대전화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는다고 함부로 클릭해서는 안 된다. 설을 앞두고 이같이 사용자를 현혹하는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기업 이스트소프트는 최근 한 달간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알약 안드로이드'에 신고된 스미싱 문자를 분석한 결과 '주소지 변경 택배' 키워드가 포함된 스미싱의 신고 건수가 929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2014년 민방위 소집훈련 통지서입니다', '○○님께서 신년인사 카드를 보내셨습니다' 등 '2014년' 키워드를 포함한 문자가 455건으로 2위에 올랐다.

지난 8일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는 '카드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스미싱이 새롭게 등장해 2주 동안 17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연말정산' '공인인증서 갱신'과 관련된 스미싱 신고 건수도 이달부터 부쩍 증가하는 추세다.

김준섭 이스트소프트 보안SW 사업본부 본부장은 "스미싱은 사회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공격으로 사용자를 현혹하는 이슈를 이용한다"며 "세태를 맞이 피해 사례와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니 예방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국현기자 knlee@

카카오톡 PC메신저에서도 1위

출시한 지 7개월 만에 네이트온 누르는 기염

7만1613명.

모바일 메신저 1위 카카오톡이 PC 메신저 분야에서도 1위에 오르며 경쟁 브랜드인 네이트온보다 더 많이 확보한 사용자 수다.

22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안클릭이 발표한 2014년 1월 셋째 주 인스턴트 메신저 로그인 보고서에서 카카오톡 PC는 순이용자 수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넷째 주만 해도 카톡PC는 주간 순이용자 수 336만2727명을 보유하며 1위인 네이트온(440만9172명)에 비해 102만여 명 차이가 났다. 그런데 올해 셋째 주 들어 이 수치가 412만6789명과 405만5176명으로 역전됐다. 개월 수로 치면 3개월 만이다. 아울러 카톡 PC는 평균 이용 시간 부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1월 셋째 주 평균 이용 시간은 카톡 PC가 1847분, 네이트온이 1749분으로 98분 차가 났다.

카톡 PC가 네이트온을 제유 앞섰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의미가 있지만 1~2위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아 앞으로의 싸움이 더 흥미진진해질 전망이다.

카톡 PC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PC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다.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현재 다운로드 수 1700만 건에 달한다. 지난해 8월 중순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소프트웨어 자료실 다운로드 순위에서도 1위를 이어오며 명실상부 국민 메신저임을 증명하고 있다.

카톡 PC의 성공 요인은 편의에 따라 모바일과 PC 환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실시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연동 기능에 있다. 모바일 버전의 핵심 기능과 사용자환경(UI)을 PC상에서 동일하게 구현해 기존 서비스에 익숙한 이용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했다.

한편 3위인 스카이프는 같은 기간 69만4614명의 순이용자 수를 기록하며 선두권과의 거리 차를 실감케 했다.

/박성훈기자

블레이드&소울 업데이트

인기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소울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벌인다.

엔씨소프트는 블레이드&소울(이하 블소)의 '시즌2: 지옥도' 업데이트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블소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스토리와 던전, 게임 시스템 등 다양한 신규 콘텐츠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시즌2 업데이트를 기념해 기존 이용자는 물론 신규 및 휴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세 가지 이벤트를 동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블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호재기자

모바일 헬스트레이너 시대

핏비트·라이프밴드 터치 손목에 착용하면 관리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쏟아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 트레이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연초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대거 출시되면서 모바일 기술과 체력 관리를 접목한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미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브랜드 '핏비트'는 22일 우리나라에 공식 진출했다.

핏비트는 신체 활동량과 수면 상태, 체지방률은 측정하는 손목 밴드 및 스마트 체중계 등의 모바일 헬스케어 제품으로 미국 시장점유율 67%를 기록했다.

클립형 운동 측정기 '핏비트 플렉스'의 경우 일일 누적 걸음 수, 칼로리 소모량, 활동 시간, 이동 거리, 수면 효율을 제공하며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제품 위 5개의 LED 불빛은 운동 목표에 대한 달성률을 표시해 목표를 이루면 5개의 램프를 모두 켜지게 하는 식으로 체력 관리를 돕는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4'는 최첨단 모바일 헬스 제품의 각축전이었다. 관련 기업 참가율이 전년 대비 40%나 늘어나며 신제품이 쏟아졌다.

LG전자는 시계형 운동 측정 웨어러블 디바이스 '라이프밴드 터치'를 내놓아 시선을 모았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걸음 수와 움직인 거리 등을 기록해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해준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 'LG피트니스'나 '마이피트니스팔'을 설치하면 단말기에서 운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소니도 모바일 헬스기기 '스마트밴드'를 선보였다. 스마트 밴드는 사용자가 특정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핏비트 글로벌 세일즈 총괄 우디 스칼 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건강과 아름다운 몸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IT 기술도 발달하는 가운데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지난 7일 미국 LA에서 열린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서 선보인 LG전자의 '라이프밴드 터치'와 22일 국내 시장에 진출한 미국 브랜드 '핏비트' 제품들. /각사 제공

물에 씻어도 멀쩡…‘워크맨’ 사운드 장착

공공IT 리뷰-소니 엑스페리아 Z1

신제품은 소니가 2년 만에 국내에 선보인 스마트폰이다.

어쩌피 아이폰이 아니라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채택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국 아이폰이 아닌 스마트폰은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엑스페리아Z1은 이 같은 고민에서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수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디카는 하이엔드 DSLR이나 미러리스가 아닌 콤팩트 상품이다. 즉 '똑딱이' 정도의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

1/2.3인치 2070만 화소의 엑스모어 RS 포 모바일 이미지 센서, 소니의 G렌즈와 비욘즈 포 모바일 이미지 프로세서 등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카메라 관련 부품 중에는 현존 최고라 할 수 있다.

이 제품의 또 다른 비밀 병기는 방수 기능이다. 국제보호규격(IP)에 맞게 생활 방수 기능을 넘어서 수영장, 욕실 등 1.5m 이내의 수심에서 30분 동안 방수가 된다.

이러한 방수 기능 덕에 '변기보다 더럽다'는 사실이 입증된 스마트폰이 청결해질 수 있다. 물로만 씻어도 상당 부분의 유해 세균이 제거된다는 게 소니 측 설명이다.

소니의 대표 상품인 '워크맨' 사운드 기술도 들어가 상품성을 높였다.

그 외의 스펙을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4.3(젤리빈)을 지원하고 스냅드래곤800, 2GB의 메모리를 탑재하는 등 고급 스마트폰 가운데서는 평균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도 최근 유행하는 가늘고 가벼운 형태라 빠지는 부분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엑스페리아 Z1이 강조하는 카메라 성능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와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는 태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다 해도 기기 자체가 다른 만큼 최적화의 문제가 생긴다.

Z1으로 인물이나 풍경 사진을 찍어봤다. 그런데 아이폰5S나 갤럭시S4에 비해 압도적인 그 무언가를 찾기는 어려웠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일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진의 질 차이가 크지 않거나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74만9000원.

/박성훈기자 zen@

"아빠 귀찮아" 하던 아이가 "아빠 어디가"

추위 걱정할 필요없는 '실내 만들기 체험학습장' 겨울방학 가족여행에 제격

방학 동안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추운 날씨로 인해 선뜻 신을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찾아보면 가까운 여행지에 아이들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성취감을 주는 '만들기 체험학습'이 인기를 끌고 있다.

황성국 체험학습 포털 위크은 본부장은 "추운 날씨로 실내 체험학습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해 겨울철 가족 여행으로 안성맞춤이다"고 말했다. 위크은이 추천하는 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추운 겨울 아이들의 감성 온도를 높여보자.

◆옹지락 꿈지락 '도자기 만들기'

먼저 수도권 인근에 있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 눈에 들어온다.

파주 헤이리 도자기 체험학교에서는 머그컵, 하트나 나뭇잎 모양의 접시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다. 또 체험학교는 방문객들의 현황을 위해 조별과 재벌구이를 거친 최종 완성된 작품을 택배로 보내주기도 한다. 인천 강화군 아르미애월드 내에 위치한 '흙의 향기'에서도 도자기 체험이 가능하다.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조벌된 하얀 도자기에 도자기 물감으로 색채를 입히는 그리기 체험도 할 수 있다.

◆김치 명인에게 직접 전수받는 '김치 만들기'

아이들 손으로 김치를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경기도 부천 전통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김치테마파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김치교육훈련기관으로 김치 명인 김순자 선생에게 직접 김치 만드는 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 체험한 김치는 가져갈 수 있으며 가족 체험도 가능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치즈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 치즈 만들기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동인체험학습장에서는 겨울 생태 치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유가 치즈로 변하는 과정을 배우며 직접 치즈를 만드는데 수제 치즈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피자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학습장에서는 치즈 만들기 외에도 썰매 등 다양한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헤이리마을에 있는 나리아 디자인웍스에서는 액자, 벽장식 시계 만들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체험에 필요한 도구가 모두 준비돼 있으며 디자이너가 함께 체험에 참여해 부담 없이 나만의 액자와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송지승기자 hosu38@metroseoul.co.kr

티티카카 호수·바기오…2월은 축제의 계절!

페루·필리핀 등 축제 풍경

다음달부터 해외 유명 축제들이 속속 펼쳐진다.

먼저 페루관광청은 2월 2일부터 15일간 티티카카 호수의 도시 푸노에서 '칸델라리아(Candelaria) 성모 마리아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밝혔다.

페스티벌은 푸노에서 거쳐되는 연례 행사로 축제에는 페루 전역에서 140개 이상의 무용단, 4만 명 이상의 무용가, 1만2000명 이상의 음악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페루 전통 춤과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며 푸노 곳곳에서는 다양한 퍼레이드와 행사가 펼쳐진다.

필리핀에서는 '파낙벵가 축제(Panagbenga Festival)'가 개최된다. 다음 달 1일부터 3월 3일까지 필리핀 바기오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꽃의 도시라 불리는 바기오의 아름답게 만개한 꽃을 즐길 수 있다.

또 올해로 18주년을 맞이하는 축제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한다. 첫날인 2월 1일 파낙벵가 파크에서부터 축제의 화려한 막을 알리는 그랜드 오프닝 퍼레이드가 진행되며 다채로운 꽃가마와 함께하는 흥겨운 민속춤 퍼레이드도 축제 기간 내내 감상할 수 있다. 22일에는 꽃에서 영감을 받은 화려한 의상을 입은 댄서들의 길거리 공연과 함께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댄싱 대회가 열리며 23일에는 파낙벵가 공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자동차 퍼레이드가 진행돼 바기오 거리를 형형색색의 꽃길로 수놓을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방한 크루즈 관광객 70만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시행 중인 크루즈 관광사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크루즈를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전년보다 약 2.5배 증가한 7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중국 관광객이 42만 명으로 전체 방한 인원의 61%를 차지했으며, 일본, 미국, 호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크루즈는 제주 등 국내 10개 항을 통해 총 433회 입항했으며 크루즈 방한객 1인당 평균 쇼핑액은 442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석 관광공사 관광상품팀장은 "올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90만 명이 크루즈를 이용해 방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루즈 분야를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물리아 발리 '플러스 1박'

인도네시아 리조트 물리아 발리가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인 여행객을 위한 '플러스 1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올 스위트 부티크 호텔인 더 물리아와 단독 빌라인 물리아 빌라를 3박 예약하면 1박이 자동으로 추가되며 물리아 리조트의 경우에는 5박을 예약할 때 1박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또 더 물리아와 물리아 빌라 이용 고객에게는 오후 시간대에 여유롭게 티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하이티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 황금연휴엔 국내여행할래"

직장인 40% 첫손 꼽아

2014년 황금연휴 동안 직장인들이 가장 떠나고 싶어하는 여행지는 해외가 아닌 국내 지역인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국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행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중 39.9%(399명)가 해외보다는 국내에서의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위는 응답자 중 32.2%(322명)가 선택한 아시아 지역이었으며 유럽(21.3%, 213명), 북미, 캐나다(4%, 40명)가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계획 중인 여행지 1위는 231명(46.2%)이 선호하는 국내 지역이었으며 2위는 아시아(29.4%, 147명), 3위는 유럽(16.6%, 83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자가 선호하는 여행지 순위는 아시아(35%, 175명), 국내(33.6%, 168명), 유럽(26%, 130명) 순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직장인들은 괌(21.9%, 219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호주(20%, 200명), 홍콩과 마카오(12.7%, 127명), 싱가포르(10.6%, 106명)도 직장인들이 여행하고 싶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은 자기만의 테마를 정하고 스스로 일정을 세우는 개별 여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37.3%(373명)가 항공-호텔 등 모든 일정을 직접 예약하는 맞춤 개별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했으며 32.5%(325명)는 항공과 호텔이 묶여있는 에어텔 상품을 구매한 후 자기만의 루트를 따라 여행을 즐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3박 4일 동안 여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운 적정 예상 경비는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었다. 또 직장인들은 여행을 떠날 연휴 기간으로는 여름 휴가와 5월 연휴 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혜진기자 h.june0404@

'로하스' 인증받은 에센스

감자성분 비단생 '비단수' 아토피 완화에도 효과적

화장품 브랜드 비단생은 감자 에센스 '비단수'가 로하스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로하스 인증은 한국표준협회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다.

(주)감자 임현준 대표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방부제나 화학성분은 일절 사용하지 않아 비단생의 전 제품의 유통기한은 1년 이내"라며 "올해는 감자 샴푸로 로하스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단수는 엄 대표가 아토피로 고생하는 막내아들을 위해 개발한 제품으로 가려움증과 진물 등 아토피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원주MBC 창사특집 다큐 '신의선물 감자 아토피와 맞서다'편에서 아토피로 고생 중인 아이 두 명이 한 달간 감자 에센스를 사용하고 증상이 호전됐다는 내용이 방영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네이버 약사 블로그 '모악산의 아침'에서 활동 중인 이지환(익산 세전넘건강관 약국) 약사는 "최근 환경호르몬이 조수증, 전립선 비대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천연 성분으로 만든 감자 에센스와 샴푸는 환경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비단수는 전국 약국 및 병·의원에서 판매 중이다. 문의 033)375-3030

'귀성길 베프' 없으면 서운

휴대용 소변기·보조 식탁·발열 도시락·타조베개 등 이색상품 눈길

매년 명절이면 반복되는 모습이 있다.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를 가득 메우며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귀성 차량들. 특히 올해는 짧은 설 연휴로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색 아이디어 상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22일 오픈마켓 11번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최근 10일간 자동차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연휴 전 같은 기간에 비해 휴대용 소변기·발열 도시락·낮잠 쿠션 등 생활 밀착형 이색 상품이 105% 더 판매됐다.

특히 막히는 도로 차 안에서 소변을 볼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휴대용 소변기는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또 차 안에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발열 도시락은 같은 기간 매출이 70% 뛰었다. 이 제품은 간단한 죽이나 라면·파스타 등 다양한 요리를 10분 내로 바로 조리할 수 있고 발열제만 있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간식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설치형 보조 식탁(왼쪽 사진)은 100% 매출이 올랐고, 아동용으로 제작된 키즈 트레이는 매출이 53% 증가했다. 본유를 대해주는 '차량용 보틀 위머'는 40%, 오스트리치 필로우(일명 타조베개·오른쪽)는 42%씩 각각 매출이 올랐다. 운전자용 목베개는 30% 매출이 증가했다.

11번가 김종용 자동차취미팀장은 "해마다 명절이 되면 장거리 이동 시 필요한 아이디어 상품이 불티나게 판매된다"며 "조금 더 편하고 즐겁게 명절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우기자 pme@metroseoul.co.kr

얇아진 설 용돈봉투 '면목없네'

'10만원 이하' 절반 가까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불황으로 세뱃돈에도 찬바람이 불 것이라는 씁쓸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설 연휴 기간 기혼 여성들은 친정보다 시댁에서 더 오래 있겠다는 예상 외의 설문 결과도 나왔다.

먼저 다국적 청과기업 스미후루코리아가 설 명절 시즌을 맞아 지난 15~21일 일주일간 온라인 주부 커뮤니티를 통해 30~50대 주부 745명을 대상으로 설 용돈과 세뱃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10만원 이하의 용돈을 드릴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올 설에 양가 부모님에게 각각 드릴 용돈 액수'라는 질문에 대해 '2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62명(35%)으로 1위에 올랐다. 하지만 '10만원'(33%)과 '10만원 미만'(16%) 등 '10만원 이하로 설 용돈을 챙겨 드리겠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웠다. '30만원'이라는 응답은 109명(14%)이었다.

'중·고등학생 자녀 및 친지에게 줄 세뱃돈 액수'라는 질문에는 41%인 308명이 '3만원'을 꼽았다. 설 준비 선물로는 현금(43.4%), 식품(33.8%)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NS홈쇼핑이 자사와 협력사의 여직원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명 중 2명이 시댁에서 1박2일(46%)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반면에 친정에서는 '반나절'(33%)을 보내겠다가 1위로 꼽히면서 시댁과 친정의 체류기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명절날 시어머니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에는 '친정에 얼른 가보거라'라는 답변이 51%로 나타나 기혼 여성들의 친정 앓이가 얼마나 큰지를 방증했다. 2위는 '오늘 고생 많았다'(22%), 3위는 '선물(용돈) 고맙다'(19%), 4위는 '음식 솜씨 좋구나'(2%)등이 올랐다.

/정연길기자

"팔도 대표음식 달라도 자례주는 하나" 롯데주류는 21일 설날을 앞둬 22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대표 팔도지도에 경상도의 대표 지례음식 상어 요리와 전라도의 대표 지례음식 홍어 요리 등 전국 팔도를 대표하는 지례음식을 선보이며 차례주 '백화수복'과 함께 올린 차례 지내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소비자 이벤트 행사를 열었다. /롯데주류 제공

'한우왕 3종' 선착순 200세트 반값할인

강강술래, 설 선물세트 온·오프라인 최대 43% 할인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온라인 쇼핑몰(www.sulla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3종 '한우왕세트'를 오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200세트를 최대 47% 할인 판매한다.

제수용 인기 부위만 담은 '한우왕세트1호'(국거리+불고기+산적 각 500g)는 7만9000원, 100% 한우 갈비살로 만든 질질한우떡갈비(1박스 360g)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나 들어간 흑양자한돈너비아니(2박스=720g)로 구성된 '한우왕세트2호'는 2만6300원에 판매한다.

한우사골곰탕(350㎖·3팩)과 우리쌀떡국떡(1kg)으로 구성된 '한우떡국세트(소)'는 2만1000원, 곰탕(800㎖·3팩)과 떡국떡(1kg)으로 만든 '한우떡국세트(대)'는 3만1000원에 선보인다.

쇼핑몰과 전화 주문 전 매장을 통해서도 실속 설 선물세트를 최대 43% 할인 판매한다.

방부제·색소·조미료를 넣지 않아 건강 선물로 좋은 100% 한우사골 곰탕 대용량 세트(800㎖·5팩·15인분)는 4만원, 소용량세트(350㎖ & 5팩·10인분)는 2만4500원, 질질한우떡갈비세트(3박스-1.08kg) 4만4500원에 선보인다.

인기 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8kg)는 6만원, '술래양념1호'(16대) 8만원,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장조림 총 2.4kg)는 14만원에 판매한다. 통등심돈가스(3박스 2.16kg, 3만1900원)와 모짜렐라돈가스(3박스 2.16kg, 3만6000원)도 30% 할인 판매한다.

내달 2일까지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sullau)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벤트 게시글에 돈가스에 얽힌 추억을 댓글로 남기면 총 16명에게 신상품 통등심·모짜렐라 돈가스를 증정하는 '추억의 돈가스' 이벤트도 벌인다.

/정연길기자

말띠해 신부는 좋겠네

"윤달 피하자" 9월 이전 결혼 커플에 웨딩업계 '반값·현장할인' 준비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를 맞아 올해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부부가 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음력 9월이 윤달이라 9월 전에 예식을 계획하는 커플이 많을 것으로 전망돼 봄과 여름 시즌이 최대 성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웨딩업계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예비 부부들을 기다리고 있다.

◆각종 특전으로 예비 부부 사로잡아

리츠칼튼 서울은 1~3월 식사 및 음료를 5% 할인해 기존 연회비 40만원의 수퍼트리플 멤버십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웨딩 스페셜 특전'을 선보인다. 또 리사키 웨딩 티아라 및 브라이덜 샤워 패키지가 무료로 제공되며 예식 당일 로열 스위트룸 1박 숙박권과 공항 이동 서비스 혜택도 주어진다.

그랜드 워커힐 웨딩컨벤션은 '2014년 상반기 오픈 프로모션'을 통해 오는 8월까지 360만원의 대관료를 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또 예비 부부들은 20만원 상당의 식음권과 사진 20컷 촬영 및 인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LG 디오스는 오는 31일까지 '2014년 새해맞이 김치냉장고 행사'에서 제품을 주문·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최대 30만원의 캐시백과 종기집 김치 쿠폰, 20만원 상당의 고급 수납용기 등을 증정한다.

또 가구 전문기업 에몬스는 갑오년을 맞아 베스트 소파를 최대 60만원까지, 명품 혼수 3종을 28만원까지 할인 판매하며 퍼슬리코리아는 1년에 단 두 차례 스페셜 에디션을 만나볼 수 있는 웨딩 컬렉션 주방용품을 출시했다.

◆청첩장 가지오면 할인

하나투어는 전국에서 '허니문 주말 상담회'를 개최한다. 방문 시 최대 70만원의 현장 할인 특전(일부 상품 제외)이 제공되며 사전 상담 예약 후 허니문을 계약하는 예비 부부에게는 영화예매권 2매 및 롤린스 쇼핑백 토트도 선물로 주어진다.

뷰클리닉은 청첩장을 들고 방문하면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에 피부·체모 비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SK-II도 청첩장과 같은 결혼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매장을 방문하는 예비 부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청첩장 업체 비핸즈카드는 오는 29일까지 인기 상품을 최대 75% 할인하고 여기에 15% 추가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를 준비했으며 오전 5시 이전에 청첩장 샘플을 신청하는 고객은 고객이 고른 10종과 MD 추천 5종, 봉투 식권 감사장으로 구성된 샘플 25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정혜인기자 hyein946@metroseoul.co.kr

인천AG의 선택 포카리스웨트

다섯 번째 공식음료 선정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공식 음료로 선정됐다.

동아오츠카는 최근 바레인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동아오츠카는 1994년 히로시마대회 이후 이번까지 5번째 아시안게임을 후원하게 됐으며 인천대회에 이어 2019 하노이대회까지 후원을 맡게 된다.

동아오츠카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재미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숙 동아오츠카 마케팅본부 이사는 "포카리스웨트가 국제적인 대회의 공식 음료로 선정돼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인천아시안게임은 포카리스웨트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롯데월드 희망나눔 행사 22일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진행된 '세계 희망나눔' 초청 행사에서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함께하는 사랑밭'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제공

싱싱한 사과·배 꼭지만 봐도 알죠

차례상 대표과일 선별법 무조건 큰것 고르면 낭패

명절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 과일인 사과와 배를 더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똑똑하게 고르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과는 '장발형'의 꼭지가 달려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 저장·유통 과정에서 사과의 꼭지가 절단되면 사과의 맛에 영향을 주는 수분, 당도, 경도 등이 나빠져 과육의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0g짜리 사과를 일주일 동안 상온에 둘 경우 꼭지가 없는 사과는 수분 함량이 4.5% 줄어들었지만 꼭지가 붙어있는 사과는 2.7% 감소에 그쳤다.

배를 고를 때는 껍질의 색깔이 맑고 선명한 황갈색을 띠며 윤기가 나면 과육의 아삭한 식감이 뛰어나다. 또 동일한 크기에서는 중량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 하며 배 고유의 점 무늬는 크고 일정할수록 좋다. 꼭지 부분이 끈적거리는 배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므로 피해야 하며 꼭지 반대편 부위에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신선한 과실이다.

배와 사과는 따로 보관해야 신선함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사과에 든 식물의 노화 호르몬인 에틸렌가스가 주변 과일, 채소의 숙성을 촉진시켜 급격히 시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사과나 배는 맛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주스·잼용으로 판매되거나 저렴한 가격에 처분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설 대목을 일주일 앞두고 마트와 재래시장에 실속형 중소 과일이 다량 선보이면서 '무조건 크고 좋은 것'만 찾던 소비자가 큰 과일에 비해 30% 저렴한 작은 과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정혜인기자

사회 초년생 위한 리버 백팩

쌤소나이트 레드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설 선물로 '리버 백팩'을 추천했다.

리버 백팩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캐주얼은 물론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또 넉넉한 수납공간과 안정감 있는 어깨끈 패드가 포함돼 있어 실용적이다. 네이비·그레이·오렌지·에메랄드 그린 등 4가지 색상이 있다.

놀부NBG 낙지설렁탕 화제

놀부NBG는 지난 20일 KBS2 '생생 정보통' 에소 개된 '맑은 설렁탕 담' 낙지설렁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곳의 낙지설렁탕은 맛과 색을 내는 데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고기로 우려낸 육수를 사용해 뒷맛이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매일 무쇠 가마솥에서 직접 밥을 지어 제공하는 것도 인기 비결로 꼽히고 있다.

metro entertainment

힐링녀의 도발 '멱살잡이 키스'

멜로물 '남자가 사랑할 때'

한혜진

배우 한혜진(33)의 가슴 시린 눈물 연기가 극장가를 뒤덮는다. 지난해 7월 결혼과 함께 방송과 연기활동을 중단했던 그는 SBS 월화극 '따뜻한 말 한마디'로 활동을 재개한 데 이어 22일 개봉한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로 한층 여유 있고 깊어진 감성을 드러내고 있다.

◆ 정통 멜로·호정 캐릭터는 내 취향

1년여 전 개봉한 영화 '26년'으로 날선 존재감을 드러낸 그는 '남자가 사랑할 때'에서 배우들의 로망인 정통 멜로를 선보였다. 이 영화에서 사채를 빌려 쓴 채 혼수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방수발하다 빚을 갚지 못해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되는 호정을 연기했다. 호정은 빚을 받으러

사채 탓 신체포기각서 쓴 女
빚 독촉하는 건달과 로맨스
진부한 신파? 빠져들 걸요
황정민 선배와 입술 훔치는
장면에 男관객 입 못다물듯

온 건달 태일(황정민)에게 끊임없이 거친 구애를 받고 결국 마음을 열고 사랑을 시작한다.

"영화든 드라마든 커다란 줄거리가 멜로인 작품은 처음 만났어요. 배우라면 누구나 해보고 싶은 게 정통 멜로인데 호정이라는 인물은 제 성향이나 기질과도 잘 맞다고 생각했죠."

SBS '힐링캠프'의 진행을 맡으면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긴 했지만 호정처럼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트는 건 여전히 쉽지 않다.

"호정이 짊어진 삶의 무게와 코너에 몰린 그의 심정이 잘 이해됐죠. 그 순간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 조금씩 마음을 열고, 차가운 내면이 녹기 시작하는 것도 저랑 많이 닮았어요."

의욕이 앞섰지만 막상 부딪힌 현장은 만만치 않았다. 영화적 장치는 최소화하고 오로지 배우의 감정만을 따라가다 보니 섬세하고 깊은 연기는 필수였다. 한 신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없었지만 이번 만큼 즐거웠던 현장은 없었다. 그는 "연기하는 게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처음이다. 정말 깊이 몰입했고 이처럼 끈끈한 팀워크를 느껴본 적도 처음이다"고 촬영 당시를 돌아봤다.

무엇보다 진부한 신파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 매 신마다 감독과 배우 등 모든 스태프가 현장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최고의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스토리가 너무 진부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누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남녀의 입장에서 각자 심리를 고민하고 관객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도록 토론을 거듭했죠."

호정의 직장 계단에서 호정이 태일의 멱살을 잡아 끌며 키스하는 장면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대본에는 간단한 지문밖에 없었지만 현장에서 탄생한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남성이 좋아하더라고요. 의외의 모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도발적인 연기를 한 번 해 봤죠. 호호호."

◆ 기성용과 결혼 전후 모습 담긴 작품

지난해 5~7월 촬영 중간에 기성용과 결혼해 이 영화는 미혼과 기혼의 한혜진을 모두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결혼과 함께 연기가 한층 안정됐다는 평을 받고 있고, 현재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함께 출연 중인 고두심은 "예쁘기만 한 배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배우로 느껴진다"고 칭찬했다.

"가볍게 넘길 것 하나도 쉽게 생각하게 되고, 고집했던 것들 중 무엇 내려놔야 할지도 알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과 결혼하다보니 서로 양보해야할 점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 결혼 후 달라졌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여전히 제 연기를 보면 체할 것 같고 어색하지만 이제야 연기자라는 직업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요즘 기성용의 활약은 그의 연기 만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과 한국에서 떨어져 지내는 최근 한 달 사이 기성용은 3골을 몰아 넣으며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아내가 옆에 없으니까 남편이 더 잘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곁에서 내조를 못 해줘 미안하면서도 정말 잘해주고 있어서 고마워요. 남편이 출전하는 모든 경기를 꼼꼼히 모니터하고 경기가 끝나면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로 안부를 묻곤 해요. 그동안 고생 많았던 선감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뻐해요. 어휴 그렇게 잘하니 놀랐어요. 호호."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올댓아랑탄드(퍼머) 디자인/박은지

미쳐서 **결혼**하고 정신차려 **이혼**했다!

tvN 금토드라마

응급남녀

내일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매주 금,토 방송

송지효 최진혁 이필모 최여진 클라라 연출김철규 극본최윤정

너무 섹시했나…

달샤벳 이어 AOA '선정성 논란' 안무 수정

새해 벽두부터 섹시 콘셉트를 강조한 걸그룹들이 수위를 낮추고 있다.

달샤벳에 이어 AOA(사진)도 일부 안무를 수정해 방송 무대에 서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버전의 안무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걸그룹 섹시 경쟁에 대해 방송사들이 칼을 빼든 것이다.

첫 컴백 무대가 끝나고 이른을 수렴해 안무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그룹 모두 이 같은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컴백 무대를 모니터한 방송사의 의견과 팬들의 의견을 적용한 것이다.

22일 한 가요계 관계자는 "방송사에서 선정적인 안무를 수정할 것을 이야기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OA는 도입부에 무대에 누워 요염한 포즈를 취하거나 치마 지퍼를 올리는 파격적인 안무를 제외시켰다.

AOA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2일 "AOA가 짧은 치마 컴백 무대 때 선보인 섹시 퍼포먼스에서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안무를 대폭 수정해 자상파 무대에 출연한다"면서 "'청순 섹시' 버전의 새로운 안무를 준비해 색다른 매력을 어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새 안무는 오는 24일 KBS2 '뮤직뱅크'에서 처음 공개된다.

앞서 달샤벳도 가슴앓이춤 동작을 수정했다. 노출 없이도 섹시하다는 걸 증명했지만 가슴앓이춤의 동작이 다소 야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보준기자 yyw@

2NE1이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미니 콘서트를 열고 '배철러' 출연진과 무대를 꾸미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 제공

美 대표예능 내한 이유 '2NE1'

ABC '배철러'팀 에피소드 '내가 제일 잘나가' 촬영차 만나 합동무대 연출

걸그룹 2NE1이 미국 ABC '배철러'에 출연해 글로벌 팝스타의 위상을 입증했다.

'배철러'는 ABC의 인기 리얼리티 시리즈로 한 남성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많은 여성 중 소울메이트를 찾는 로맨틱한 여정을 담은 연애 프로그램이다. 2002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솔직한 남녀의 행동과 심리를 담으면서 인기몰이를 해왔고 현재 시즌 18에 접어든 장수 프로그램이다.

2NE1은 27일 오후 8시(현지시간) 방송되는 '배철러' 시즌 18의 데이트 에피소드에 출연한다. 이 에피소드는 전직 베네수엘라 프로축구 선수 출신인 남자 주인공 후안 파블로 갈라비스와 그의 짝이 되기 위해 경쟁 중인 미녀들이 2NE1의 히트곡 '내가 제일 잘나가'의 댄스를 배우는 그룹 데이트를 다룰 예정이다.

'배철러' 출연자들과 제작 스태프들은 댄스 코치 그룹 데이트 장면 촬영을 위해 한국을 찾았고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연습실을 방문해 2NE1 멤버들을 만났다.

2NE1은 '내가 제일 잘나가'의 댄스 동작과 포인트 안무 등을 알려줬고 출연자들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를 따라 하며 방송 녹화에 임했다. 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2NE1의 미니 콘서트에서 2NE1과 '배철러' 출연진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내가 제일 잘나가'의 합동 무대를 꾸몄다.

데뷔 5년차인 2NE1은 그동안 윌아이엠, 디플로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음악 작업을 해왔고 세계적인 디자이너 제레미 스콧과 함께 아디다스 오리지널 광고를 진행하는 등 패션 아이콘으로도 주목받아 왔다. /유순호기자

손호준 "유노윤호와 절친"

tvN '응답하라 1994'로 스타덤에 오른 손호준(사진)이 동방신기 유노윤호와의 진한 우정을 과시했다.

그는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시절 극단 활동을 할 때 친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윤호와 절친이었다. 나이는 윤호가 나보다 어리지만 그 후로 셋이 늘 뭉쳐 다녔다"면서 "윤호와는 거의 가족 같은 사이다. 윤호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시면 내가 마중 나갈 때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윤호가 연습생 신분으로 다나씨의 레머튼 할 때는 내가 용돈을 줬지만 그 후엔 윤호가 잘돼서 내가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서울에서 혼자 어렵게 지내면서 의식주 자체가 불가능했을 때는 윤호가 늘 먼저 한에나 밥값을 계산했다. 이젠 내가 돈을 버니까 앞으로는 밥값을 계산할 것"이라고 고마워했다.

드라마의 높은 인기로 인해 10년간의 무명에서 벗어나 정신없이 바쁜 요즘도 유노윤호와 자주 연락하고 지낸다고 했다.

손호준은 "윤호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이다. 내 기사가 나면 스크랩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연락하고 지낸다"면서 "술을 좋아하는 나와 달리 윤호는 술을 마시지 않아 주로 둘이 만나면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간다"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박진현기자 tak0427@

걸스데이, 팬 300명과 달콤한 '섬싱 식사'

컴백곡 MBC·SBS 음악프로 1위 달성에 공약 이행

걸그룹 걸스데이(사진)가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걸스데이는 22일 강남구 씨티오브인에서 생상 1위 달성을 기념하며 팬 300명과 식사를 했다. 이번 '골점심' 이벤트는 취재진과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걸스데이가 등장하자 팬들의 함성으로 행사의 분위기가 고조됐다.

국내 최초로 이뤄진 팬들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이벤트를 시작하며 걸스데이는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갔으면 한다. 더 많은 팬들에게 점심을 대접하지 못해 아쉽다"며 "다음에는 3000명과 함께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리더 소진은 "요즘 얘기하는 대로 다 이뤄진다"며 "우리 멤버 각자가 연기자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좋겠고 솔로와 유닛 활동으로 그룹이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새로운 바람을 전했다.

앞서 걸스데이는 미니앨범 '에브리데이3' 발매 컴백 기념 쇼케이스에서 "방송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게 되면 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공약을 말했다. 걸스데이는 지난 11일과 12일 MBC '쇼! 음악중심'과 SBS '인기가요'에서 연달아 1위에 올랐다.

한편 이날 행사는 걸스데이 사인이 담긴 편지와 앨범-카드등 추첨을 통해 팬에게 전달하면서 마무리됐다.

/전효진기자

김재경 '레인보우블랙' 아트디렉터로도 뛴다

김재경(사진)이 레인보우 블랙의 멤버와 아트디렉터로 겸업에 나선다.

20일 4인조 유닛 레인보우 블랙으로 활동을 시작한 김재경은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될 로고 디자인을 맡았다. 그는 신곡 '차차'의 퍼포먼스 무대 주요 소품인 '블랙박스'와 레인보우 블랙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미지 등 두 가지 로고를 제작했다.

지난 20일 쇼케이스에서 최초로 공개된 블랙박스라는 이름의 상자에는 김재경이 손글씨로 쓴 글이 전면에 프린트됐다. SNS 이미지 로고는 '19금 섹시 유닛'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여성의 신체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의상디자인을 전공한 김재경은 그동안

미술, 리폼, DIY(Do It Yourself)용품 등의 제작기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남다른 손재주를 뽐내왔다. /유순호기자

'폼페이' 최후의 로맨스 부활

재난 블록버스터 '…최후의 날' 세계 최초 국내 개봉 앞두고 웅장한 스틸 공개

다음달 20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봉될 초대형 재난 블록버스터 '폼페이: 최후의 날'이 웅장한 스케일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영화는 로마제국의 휴양지이자 풍요와 번영의 도시였던 폼페이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든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 폭발 실화를 다룬 작품이다. 당시 발굴된 유적 중 남녀가 서로를 껴안고 있는 이른바 '연인 화석'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영화는 폼페이를 배경으로 노예 출신 최고의 검투사 마일로와 폼페이 영주의 딸 카시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타이타닉', '투모로우'의 특수효과팀과 '2012'의 시각효과팀이 참여해 폼페이의 화려한 모습과 베수비오 화산 폭발을 생생하고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또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자 '삼총사 3D' 등 연출하며 액션과 시극에 감각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은 폴 앤더슨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왕좌와 게임'의 존 스노우 역으로 큰 인기를 얻은 킷 해링턴이 마일로 역을 맡아 남성미 넘치는 모습을 선보이며, 청순한 외모와 우아한 분위기의 에밀리 브라우닝이 카시아로 분한다. 드라마 '24'의 잭 바우어로 유명한 키퍼 서덜랜드와 '매트릭스' 시리즈의 헤로인 캐리 앤 모스 등이 참여해 영화에 무게를 더한다.

22일에는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스틸을 처음 공개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장 화려했던 도시 폼페이의 전경과 사상 최대의 화산 폭발이라는 대재난 상황을 실감 나게 담았다.

또 자유와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이는 마일로와 함께 카리스마와 남성미를 자랑하는 검투사들의 모습으로 강렬한 액션을 예고했다.

/박진영기자 tsk0427@metroseoul.co.kr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

DA엔터테인먼트 제공

펌프스 탈이 퍼도 지는 집시여인 바다

뮤지컬 '카르멘'에 출연 중인 바다가 패션 매거진 바자 2월호에서 펌프스 화보를 공개했다. 바다는 크사스타킹을 신고 피아노 의자에 앉아 한층 깊어진 섹시한 여인의 모습을 선보였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아찔한 눈빛과 고혹적인 자세가 눈길을 끈다.

/장성준기자 yjw@

이종석의 충청도 로맨스 '피끓는 청춘' 3개국 판매

'대세남' 이종석(사진)이 아시아에서도 '핫'한 인기를 과시했다.

홍보 마케팅사 올댓시네마는 22일 "오늘 개봉된 이종석의 주연작 '피끓는 청춘'이 해외 3개국에 개봉 전 이미 선판매됐다. 지난해 11월 아메리칸 필름 마켓에서 홍콩에 선판매된 후 최근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추가로 팔렸다"고 밝혔다.

드라마 '학교 2013',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종석과 '늑대소년', '과속 스캔들'로 인지도 높은 박보영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았고, 유쾌한 청춘 로맨스라는 신선한 콘셉트가 해외 젊은 관객층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는 것이다.

이번 영화의 홍콩 배급을 맡은 델타픽은 이종석의 전작 '노브레싱'의 홍콩 배급사이기도 하다. 배급사 관계자는 "가장 핫한 라이징 스타로서 이종석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봤기 때문에 '피끓는 청춘'도 홍콩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흥행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22일 나란히 개봉된 황정민·한혜진 주연의 '남자가 사랑할 때', 심은경 주연의 '수상한 그녀'를 제치고 20%(22일 오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실시간 예매율 집계 기준)가 넘는 점유율로 이날 개봉작 중 예매율 1위에 올랐다.

이 영화는 1980년대 충청도를 배경으로 청춘들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통해 순수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이종석이 소년 카사노바로 변신해 눈길을 끈다.

/박진영기자

류승룡 액션! 1000만 관객의 '표적' 될까

상반기 개봉작서 또 한번 변신

스크린의 흥행 보증수표 류승룡이 액션영화 '표적'(가제)으로 2014년을 연다.

류승룡은 3개월간 54회에 걸쳐 진행된 '표적' 촬영을 최근 마치고 상반기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표적'은 의도지 않은 살인 사건에 휘말린 남자 여훈(류승룡·사진 오른쪽)과 누군가에게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여훈을 돕게 된 레지던트 태준(이진욱·왼쪽)이 동행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광해, 왕이 된 남자'와 '7번방의 선물' 등 두 편의 출연작으로 연속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테기록을 세운 류승룡은 또 한 번 색다른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해 막강한 티켓 파워를 과시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대형 사극 '명량-회오리바다'로 또 한 번 연기 변신을 시도한다.

'표적'에서 냉철함과 인간미를 동시에 지닌 남자 여훈을 연기한 류승룡은 "액션 연기를 소화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촬영한 것 같다. 새로운 모습을 빨리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촬영 소감을 전했다.

류승룡과 이진욱의 강렬한 연기 변신을 엿볼 수 있는 캐제이싱 장면이 22일 공개됐고, 공개된 사진에는 두 배우의 긴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호기심을 자극한다.

'표적'은 '고사: 피의 중간고사'로 감각적인 연출력을 보인 창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이번 영화에는 김성령·조여정·조은지 등이 출연하고 진구와 유준상이 특별 출연한다.

/유순호기자 suno@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아, 보고 싶었어

작년 개봉 좋은 영화 10편 메가박스 리플레이' 손짓

지난해 개봉작 중 좋은 영화 10편을 선정해 재상영하는 '2014 메가박스 시네마 리플레이'의 최종 10편의 리스트가 공개됐다.

재상영작은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2월 7일), '지슬'(2월 8일), '그래비티'(2월 9일·3D 애트모스),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2월 14일), '테이크 셸터'(2월 15일), '마스터'(2월 16일), '세임'(2월 21일), '홀리 모터스'(2월 22일), '장고'(2월 23일), '블루 재스민'(2월 28일) 등 총 10개 작품이다.

이들 영화들은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추천하는 '꼭 봐야 할 2013년의 좋은 영화' 30편을 대상으로 진행된 관객 투표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선정됐다. 올해 재상영작 투표에는 약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시네마 리플레이는 다음달 한 달간 매주 금~일요일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후에는 이동진 영화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박진영기자

'홍'의 손길 뿌리치나

대표 복귀설 박지성 월드컵 최종전훈 때 자선경기 개최 예정 '7월 결혼식' 보도도

영원한 캡틴 박지성(33·에인트호번·큰 사진)의 대표팀 복귀에 자선경기와 결혼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박지성은 오는 5월 31일이나 6월 1일 동남아시아에서 박지성장학재단이 주최하는 2014 아시안 드림컵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성이 직접 출전하는 이벤트 경기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하게 되는 대회다. 개최지는 미정이다.

자선 축구 대회 일정은 월드컵 대표팀의 최종 전지훈련 일정과 겹친다. 홍명보(작은 사진)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5월 중순 이후 최종 전지훈련을 실시한 뒤 6월 초 대회 개최지인 브라질로 이동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만 홍 감독이 박지성을 만나 대표팀 은퇴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어보겠다고 밝히면서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 여부에 불씨를 살렸다.

여기에 박성종 JS파운데이션 상임이사는 박지성의 결혼 일정을 언급하면서 "6월에 월드컵이 있어 5월 초나 7월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혼 일정을 언급했지만 월드컵 출전 여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박 상임이사는 이어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를 놓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박지성 스스로의 결정이다"고 밝혔다.

결국 홍 감독과 박지성의 만남에서 복귀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22일 오전 한 매체는 박지성이 오는 7월 2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민지 SBS 아나운서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의준기자 yna@metroseoul.co.kr

"내 공이야" 브루클린 네츠의 케빈 가넷(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경기에서 올랜도 매직의 수비진을 뚫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브루클린이 101-90으로 승리했다. /AP 연합뉴스

양키스, 윤석민 잘 봐둬!

日 다나카 영입 실패 땐 훌륭한 대안 보도 나와

윤석민(28·사진)이 미국프로야구 전통의 강호 뉴욕 양키스와 선발진의 실력을 갖췄다는 현지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 CBS스포츠는 22일 "양키스가 다나카 마사히로를 꼭 잡아야 하지만 LA 다저스나 시카고 컵스와의 경쟁에서 밀릴 경우 다른 선발 보강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윤석민을 언급했다.

윤석민과 함께 다나카의 대안으로 양키스가 눈여겨볼 수 있는 선수로 맷 가르자·우발도 히메네스·어빈 산타나·브론슨 아로요 등 마흔을 거론했다. 이 언론이 윤석민을 아로요 마흔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향후 거취에 희망을 걸게 한다.

아로요는 메이저리그 통산 138승127패 평균자책점 4.19를 기록했고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2승과 14승을 거뒀다. 마흔은 2012년 13승(11패 방어율 3.67), 2013년 10승(11패 방어율 4.41)으로 안정적인 선발로 평가받고 있다.

CBS스포츠는 "윤석민은 선발을 원하고 있지만 중간계투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윤석민이 시즌 시작 전에 선발진에 합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양키스는 윤석민을 영입 리스트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민은 메이저리그 구단과 협상하기 위해 17일 출국했다.

/유순호기자

쇼트 출신 이승훈 '쇼트 승부수'

쇼트트랙 대표팀 佛전훈 동반출국 1만m 2연패 담금질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이승훈(26·대한항공)이 쇼트트랙 대표팀과 함께 전지훈련을 떠났다.

이승훈은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쇼트트랙 대표팀의 전훈지인 프랑스 퐁트로뮤로 출국했다.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은 25일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하며 이승훈은 29일 합류한다.

쇼트트랙 선수 출신인 이승훈은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꾼 지 1년도 되지 않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1만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을 따내는 기적을 일궜다.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왼쪽)과 최광복 쇼트트랙 감독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훈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이 같은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쇼트트랙 선수들과의 훈련을 택했다. 프랑스 대표팀이 전훈지로 애용하는 곳이기도 한 퐁트로뮤는 해발 1800m의 고지대로 선수들의 심폐 지구력을 강화해 실전에서 더 강인한 체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이승훈은 "밴쿠버 올림픽 당시에도 캐나다 캘거리(해발 1000m)에서 훈련해 성과를 봤다. 승부를 걸어야 하는 만큼 잘 준비하겠다"며 "스피드스케이팅 훈련을 하다가 지루해질 때 쇼트트랙 훈련을 하면 다시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자신만의 훈련 비법을 귀띔했다.

그는 또 "메달을 따란 이후를 상상해보지는 않았다"면서 "웃으면서 돌아오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다음달 2일 소치에 입성한다.

/유순호기자 suno@

맨시티 리그컵 결승 진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FC(이하 맨시티)가 막강 화력을 자랑하며 캐피털원컵(리그컵) 결승에 진출했다.

맨시티는 22일 영국 런던의 업턴파크에서 열린 2013~2014 캐피털원컵 4강 2차전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를 3-0으로 꺾었다. 9일 치러진 1차전에서 6-0 대승을 거둔 맨시티는 1·2차전 합계 9-0으로 웨스트햄을 제쳤다. 9골 차 승리는 리그컵 준결승 사상 최대 점수 차다.

맨시티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리그컵 결승에 올라 38년 만에 우승을 노린다. 맨시티의 결승 상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선덜랜드 AFC의 승자다. 리그에서도 선두 아스널 FC에 1점 뒤진 2위를 달리고 있는 맨시티는 FA컵 32강전에 진출해 있으며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도 16강에 올라있다. /김성훈기자

프로농구 전적 (22일)

팀	1Q	2Q	3Q	4Q	합계
오리온스	20	24	15	17	76
삼성	16	12	13	18	59
동부	10	27	22	15	74
SK	21	24	19	18	82
KDB생명	12	24	15	10	61
하나외환	17	8	12	20	57

프로배구 전적 (22일)

기업은행	3	0	도로공사
현대캐피탈	1	3	삼성화재